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노동안전지킴이’ 전면 도입하면 산재사망 줄어든다
성과로 입증된 이재명표 노동정책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지난해 산재사망자 숫자는 827명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조합도, 정부도 지켜주지도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반해 노동안전지킴이가 활약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산재사망 예방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전국 건설업 전체(85,006개소)에서 사고사망자 116명(0.14%)이 발생한 것에 비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한 16,059개소 중 사고사망자는 0.02%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의 현장 밀착형 노동정책을 실천해온 당사자들의 지지선언이라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이들은 “지난해 827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며 “이분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실시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했다.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박현철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재명 후보 노동정책의 특징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즉시 실천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가 당선되어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전 한국노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김문수 후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며 “아리셀 참사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배반한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변절자”라고 성토했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 점검과 외국인 등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예방교육 실시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재명표 노동안전지킴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이 후보가 공약한 안전·안심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도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안전할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책무는 노동자들과 기업을 넘어 지자체와 정부에 있다”며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그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야말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3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함께 했다.

<첨부> 현장사진

